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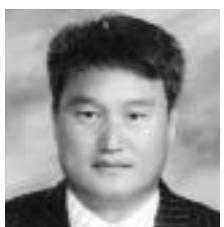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화순군, '귀농인의 집' 안정

운영 위한 운영자 회의 개최

바뀐 운영 지침·입주자 선정요령 등 사항 전달



화순군이 귀농 인구 늘리기에 효과가 있는 '귀농인의 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 회의를 개최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귀농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농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군은 지난 10일 운영자 회의에서 바뀐 운영 지침, 입주자 선정요령, 관리 방법, 보증금과 임대료 설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자들은 운영 노하우,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의 초기 투자 부담 절감, 농촌 마을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미을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적응기를 통한 길등 최소화 등에 효과가 있다. 또, 농촌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귀농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아비자하고 있다.

화순군은 현재 귀농인의 집 11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중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 예정인 곳은 8개소다. 동북면 신율리 신기마을, 춘양면 산간리 산간마을, 도암면 도장리 도장마을은 3곳은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입주 가능자는 귀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세부적인 입주 자격과 문의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61-379-5442 ~ 3)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에 귀농하고자 상단을 요청하는 예비 귀농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진도군, 청정 수산물 생산·판매·홍보 집중

진도군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우수 수산물 생산·홍보·판매에 집중한다.

민선 7기 진도군은 어업인 소득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 입기내에 농·수산업 예산을 40%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산물 산지기공 시설 4개소(54억원) ▲저온저장시설 5개소(9억원)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1개소(30억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새해를 맞아 전북 ASC(양식 수산물) 국제 인증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전복 미역, 꽃게 등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이 수도권에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작년 연말 제주도에 사후면세점인 '해태 김 박물관'을 개장해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간부공무원 등이 '대한민국 대표 진도 김, 전복' 등의 명함을 제작, 사용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군,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

경연 최우수상·장려상 수상 쾌거

김진혁·이소영 '바퀴를 찾아라' 최우수상

국산목재의 이용문화 촉진 및 목재문화 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남도에서 개최하는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시)담양공예인협회 소속 김진혁·이소영씨의 작품 '바퀴를 찾아라'가 최우수상을, 황미경씨의 작품 '대나무야 놀자'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 경연대회의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시연 심사로 교육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진행됐다.

특히, 2차 현장 시연심사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와 참여비용의 적정성, 체험을 통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 등 3개 영역 15개 항목의 상세 평가가 이뤄졌다.

담양=박종영 기자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최우수상 1백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시상금이 각각 수여됐으며 목재문화 체험장 지도자 체육 시 우대와 교육청·학교와 연계한 학생 체험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빙영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임홍준 산림정원과장은 "이번

수상작은 교육청 및 학교 학생 체험프로그램에 반영해 담양을 찾는 학생들의 목재 체험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 이를 통해 대나무와 친숙해지고 신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담양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2차 현장 시연심사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와 참여비용의 적정성, 체험을 통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 등 3개 영역 15개 항목의 상세 평가가 이뤄졌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 물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빅데이터 나와



장남진 장흥 물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흥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남진 장흥 물축제의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부터

축제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축제장에서 2시간 이상 체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자와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방문객 수와 카드매출을 분석했다.

지난해 장남진 장흥 물축제는 주거인구(4만명) 대비 외부 방문객 비율은 90%로 36만1천여 명의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여 16억 8천여만 원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은 4.5시간이며 방문객 중 44%가 이간체류(숙박)형 방문객으로 분석돼 물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

수축제인 장남진 장흥 물축제는 '물과 숲 그리고 휴(休)'라는 주제로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 탐진강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진행된다.

설수대첩 거리페리드와 지상최대의 물싸움, 황금 물고기장을 잡아라, 장흥 워터풀 풀파티 등 방문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장남진 장흥 물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운영

영암군은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500만 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빌려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500만 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빠르게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기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영암군청 주민복지실(☎470-2068),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 협약

클린카드·One-stop 회계 시스템 도입…투명성·효율성 강화



향목 세분화, 지출결의서 자동연동, 카드 사용액 1% 적립, 송금수수료 면제 등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ne stop 회계 시스템은 KEB 하나은행과 기초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슈화된 사립 유치원 공공성 문제를 계기로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와 151개 어린이집이 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이뤄낸 협약이다.

권오봉 시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하나은행 클린카드와 One-stop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클린카드는 사용시간 제한, 세입

곡성군, '토란파이'

지역명물로 발돋움

전국 토란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 토란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곡성군이 토란파이를 개발하며 토란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곡성군에서는 죽곡면과 삼기면을 중심으로 100㏊에서 연간 2,500톤(생산액 50억원)이 생산되고 있다.

본래 토란은 서울 경동시장에서만 포대단위로 거래되었으나 지금은 10kg 규격 상자로 농산물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곡성군이 그동안 토란을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우량품종 선발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박피로란 생산에서 유통개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

특히 2018년에 토란파이, 토란피자 등 5종의 가공식품을 개발했고, 그 맛이 뛰어나 평가회와 각종 시식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곡성=김광희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